



Prof. Katherine 과 대화 중인 필자

뜨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의 연구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앞서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이 분야는 현재 어떤 것인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조급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농의 조급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생물화학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해 보고자합니다.

필자가 AICHE Annual Meeting 을 취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남다른 의미나 선견(先見)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연구력에 대한 막연한 열등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취지임을 밝힙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벽을 넘어야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그네들이 강한 면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옳은 방향이 도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의 copy 가 아닌 창의적인 연구는 정확한 자기 진단과 분명한 소신과 애정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의 규모 및 여러 연구환경에서 현격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중국에 벌어질 결과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학회나 세미나가 미국에서 학위를 했거나 박사후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에게 연구의 좌표를 설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내일은 Critical Issues Series-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와 Workshop for Faculty & Prospective Faculty 에 대한 취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ndianapolis 에서 윤성용이었습니다.

